

## 블라인드 데이트

March, 2017 | Anna Sansom

page 1 of 6

ONE ARTIST, ONE MATERIAL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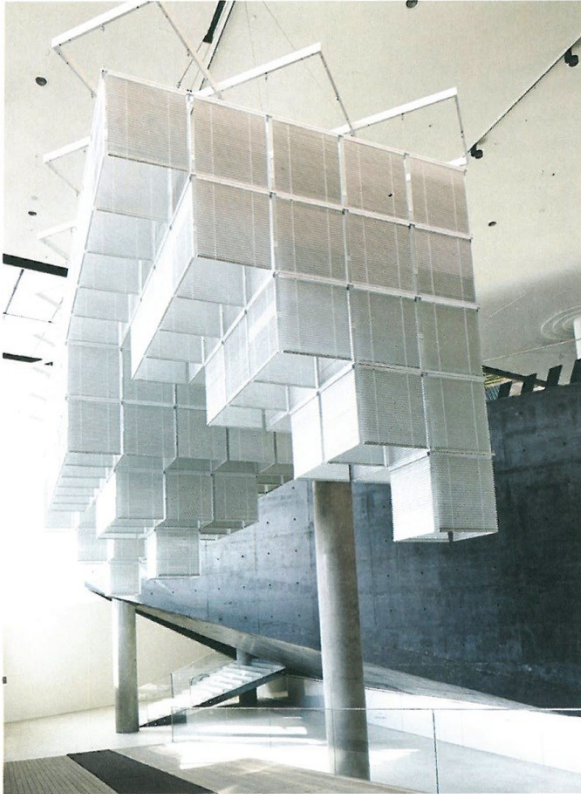


## 블라인드 데이트

양혜규는 베니션 블라인드로  
공간을 표현한다

글  
ANNA SANSOM

인물사진  
DANIEL HOFER



거꾸로 뒤집힌 솔 르윗-스트럭처 및 쓰리 타워즈, 익스펜디드 23 타워즈(2015)의 구조는 솔 르윗의 작품에 매료된 양혜규의 정서를 보여준다. 양혜규는 여러 겹의 블라인드를 이용해 솔 르윗의 스트럭처 및 쓰리 타워즈(1986)를 확장, 전도하고 있다.

“나는 솔 르윗이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해방감을  
느낀다”

서울과 베를린에서 시간을 나누어 지내는 양혜규는 일상적 소재를 추상적이고 미묘한 서사 방식으로 채용해 구상 작품을 만든다. 그 결과물은 봉투의 보안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 작품에서 옷걸이와 같은 재품을 중심으로 만든 조각에까지 이른다. 45세의 이 작가는 2006년부터 베니션 블라인드로 조각과 설치 작품을 만들어왔다.

2006년 시작된 다감각 설치 작품 버너러블 어레인지먼트 시리즈-버전 위트레흐트에서 처음 베니션 블라인드를 사용했다. 어떻게 블라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양혜규: 그 설치 작품은 조명과 향기를 발산하는 기구와 같은 장치로 이루어진 감각장치였다. 거기에 같은 공간 내에 있는 비디오 에세이를 통한 '목소리'가 병치되었다. 공간의 경계를 만든 것이 베니션 블라인드였다. 블라인드의 모호함이 편안하게 분리되어 있으나 충분히 연결되어 있는 양면성을 달성했다. 이러한 발견이 2006년의 제 다음 작품, 버너러블 어레인지먼트 시리즈-블라인드 룸에 영향을 주었다.

블라인드의 인도를 받아 빛/어둠, 바람, 열기, 습기, 냄새의 장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은 연상된 기억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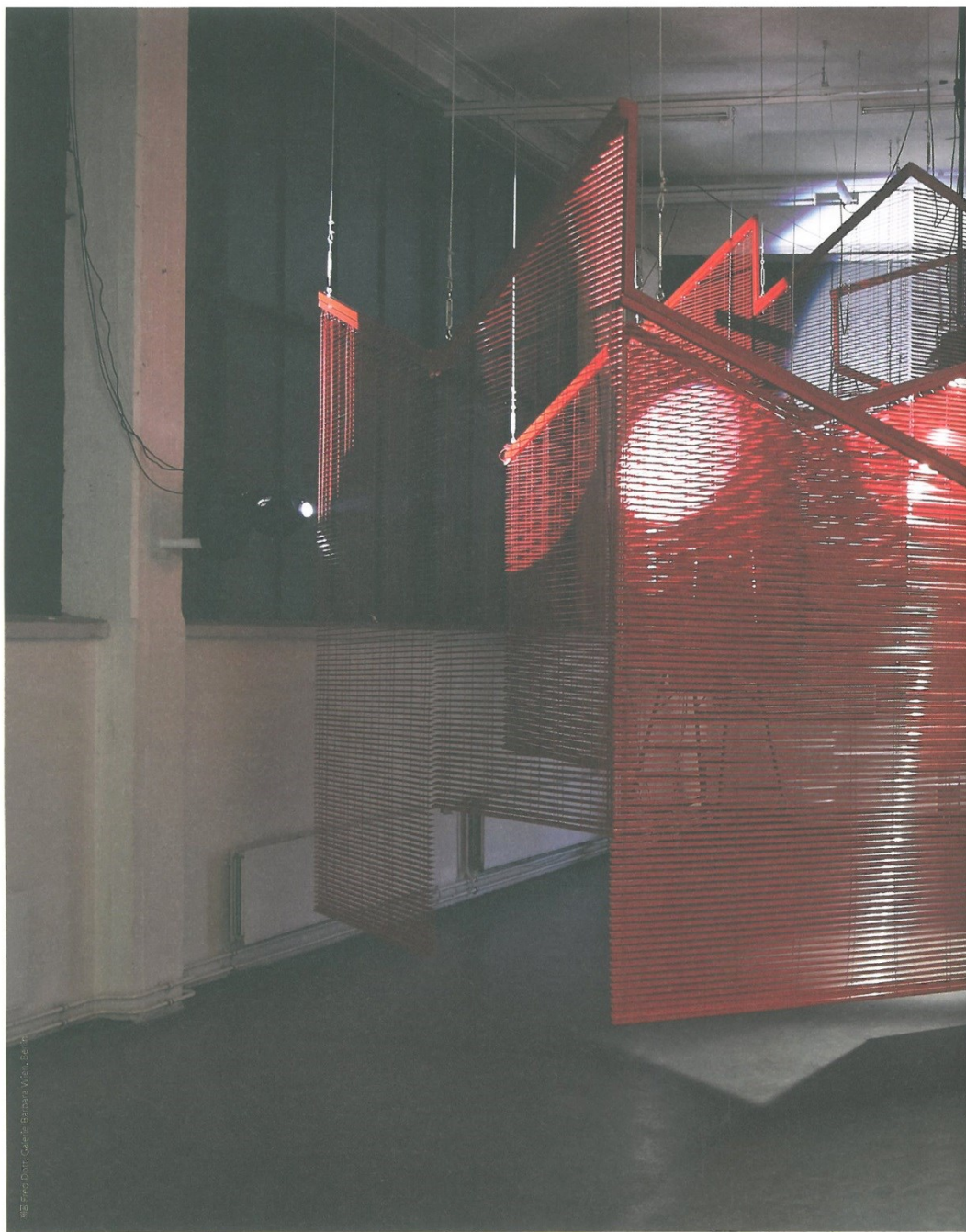
이를 해매게 된다. 감각에 대한 응시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방문객은 분열과 분리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서로 묶여 있다.

베니션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것이 공간과 건축적 부피에 대해 생각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나. 2008년 설치 작품, 마운틴즈 오브 인카운터는 서사에서 추상으로의 첫 전환을 나타낸다. 다른 각도를 이루는 강렬한 붉은 색 베니션 블라인드의 나선형 레이아웃은 중국 옌안의 산세를 보여준다. 옌안은 한국의 지하 혁명가 김산이 1930년대에 예상치 못하게 미국의 저널리스트 헬렌 포스터 스노우를 만난 곳이다. 이 만남을 계기로 그녀는 김산의 전기를 쓰게 되었다. 네 개 조명의 측면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블라인드의 표면을 예리하게 자르는 동안 나선 구조의 중앙에 있는 흰색 원들과 두 개의 강렬한 투광 조명이 어두워졌다 밝아진다. 조명과 블라인드가 격한 대치를 벌이면서 이 만남의 영웅적이고 세계적인 특징이 역사를 관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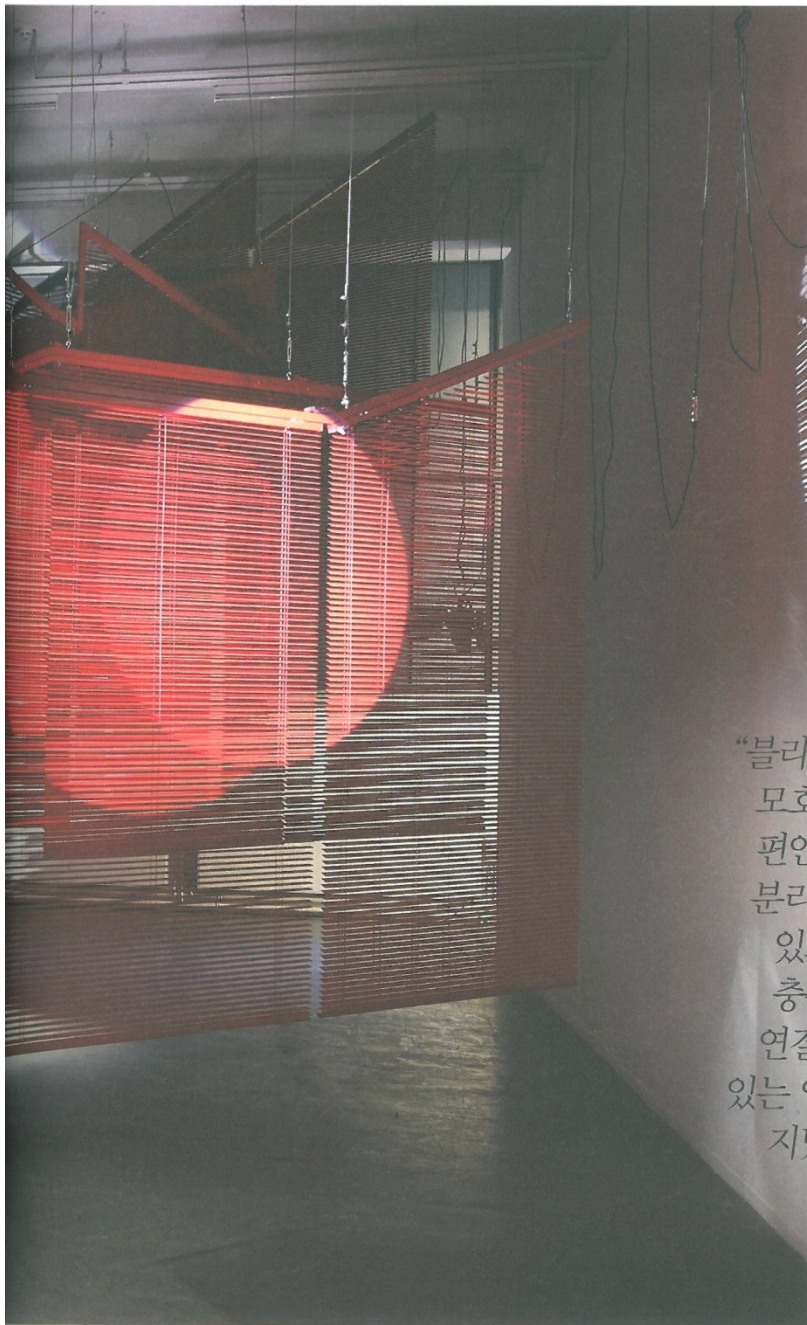
당신의 설치 작품은 문학 속 인물, 그들의 정치와 열정에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베니션 블라인



XIB Leeum, Samsung Museum of Art, Kukje Gallery, Seoul



188 Fred Dorr, Celia, Barbara, Maria, 1964



양해규는 '마운틴즈 오브 인카운터(2008)가 서사에서 추상으로의 첫 전환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 설치 작품-강력한 붉은색 배니션 블라인드의 나선 구조-는 독일 함부르크의 미술협회에서 열린 국제 그룹 전시, 베셀 게쉬하르테 (그의 스토리)를 위한 것이었다.

“블라인드의  
모호함이  
편안하게  
분리 되어  
있으나  
충분히  
연결되어  
있는 양면성을  
지녔다”



한국 작가 임혜규는 설치 작품에 베니스 블라인드와 같은 일상적인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베니스 블라인드는 2008년부터 그녀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보는 이들은 구체적인 서사를 보지 못한 채로 남긴다. 이것은 내가 추상을 달성하는 데에서 원하는 목표이다”

드가 어떻게 추상적인 서사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나. 그 한 예가 2008년 작, 리셀 러브이다. 독일 녹색당의 창립자 페트라 켈리와 독일 장성이자 평화 운동의 영웅인 게르트 바스티안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강렬한 동지애와 비극적 결말을 읊미하는 작품이다. 1992년 바스티안은 잠들어 있는 켈리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살했다.

이 설치 작품은 실험적 템플릿을 활성화시켜 그들의 서사를 탐구한다. 암회색의 베니스 블라인드와 야생화와 회약 냄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밝은 조명 등의 소재를 이용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는 이들은 구체적인 서사를 보지 못한 채 남긴다. 그것이 추상을 달성하는 데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이다. 추상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서사에 가치를 부여한다.

작품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리 중요치 않다. 그것은 보는 이들의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에 가깝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작품과 관객은 그런 스토리에 몰입하는 나의 열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는 명백한

의미를 낳는 곳보다는 다소 난해한 표현이 있는 시각적, 공간적 현장에 관객을 초대하고자 한다.

다른 작품은 솔 르윗의 기하학 구조와 같은 20세기 작품을 참조하고 있다. 작품의 이러한 측면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그의 모듈식 구조와 같이 솔 르윗이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과 '구상 작가들은 이성주의자라기보다는 신비주의자이다. 그들은 논리가 이르지 못하는 결론으로 도약해간다'는 그의 진술에서 해방감을 느낀다. 2015년부터 이어진 나의 작품, 거꾸로 뒤집힌 솔 르윗-스트릭치 윌 쓰리 타워즈, 익스펜디드 23 타일즈의 주된 이행 기제는 솔 르윗의 1986년 작 스트릭치 윌 쓰리 타워즈의 확장이자 전도이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층의 블라인드가 쌓이면서 점점 불투명해지는 반면 얇은 영역은 투명성을 유지한다.

한국의 현대사와 관련해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길고 잔혹한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과 언론의 자유와 민주 가치의 희생이 두드러진 군사 독재의 한국 현대사를 경험한 나는 권위주의적 권력의 남용에 대

해 자각하게 되었다. 역사를 기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주관적 방식으로 역사를 표현하고 싶다. 역사가 학습하는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말이다.

2016년 퐁피두 센터에서 전시된 링저링 누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녹색이나 핑크와 같이 '형언할 수 없고, 범주화할 수 없다'고 일컬어지는 색상을 선택했다. 색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링저링 누의 각 색상은 내가 만든 8각 연결시스템에 의해 규정된 특정한 각도에 관련되며 퐁피두 센터 건물에 속한 환기나 전기 장치와 같은 부분의 주된 색채를 반영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무엇인가. 로스앤젤레스 현대 미술관의 일부인 계현 컨템포러리에서 열리는 개인 전시회이다. 2019년 6월에 열릴 예정인 이 전시회는 베니스 블라인드를 이용한 주요 설치 작품을 비롯해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아우르게 될 것이다. ● heikejung.de